

학습영역	작품	작가	쪽수
실전학습 1회	고공가(8)	허전	2
실전학습 1회	용사음(5)	최현	6
실전학습 1회	시	박목월	-
실전학습 1회	살림	이병률	-
실전학습 1회	소대성전(8)	작자 미상	9
실전학습 1회	삼대(8)	염상섭	13
실전학습 2회	도산십이곡(9)	이황	17
실전학습 2회	이름 없는 꽃	신경준	-
실전학습 2회	옹고집전(8)	작자 미상	21
실전학습 2회	아마존 수족관(6)	최승호	25
실전학습 2회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3)	김기택	27
실전학습 2회	산거족(8)	김정한	28
실전학습 3회	빌려줄 몸 한 채(8)	김선우	32
실전학습 3회	맨발(8)	문태준	36
실전학습 3회	잉여 인간(9)	손창섭	40
실전학습 3회	불신 시대(8)	박경리	46
실전학습 3회	정과정(9)	정서	50
실전학습 3회	개야미 불개야미~(4)	작자 미상	54
실전학습 3회	애오잠병서	이달충	-
실전학습 3회	옥단춘전(7)	작자 미상	56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년 고2 3월 / 해설 1~2쪽)

(가)

이웃에 있는 장생이란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여 산에 들어가 재목을 찾았으나, 뽕뽕이 심어진 나무들은 대부분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용도에 맞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산 꼭대기에 한 그루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곧바르고 좌우에서 보아도 역시 곧기만 했다. 때문에 쓸 만한 좋은 재목으로 생각하고는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 뒤에서 살펴보니, 구부러져 있는 나무였다. 이에 장생은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했다.

“아, 나무 가운데 재목이 될 만한 것은 보면 쉽게 살필 수 있고, 고르면 쉽게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살폈어도 쓸모없는 재목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니 하물며 사람들이 외모를 그럴 듯하게 꾸미고 속마음을 깊게 숨기는 경우에 있어서라!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그 외모를 보면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하며 세세한 행동을 살펴보아도 삼가고 삼가니, 군자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큰 변고를 당하거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경우에 닥치고 나면 본심을 드러내고야 마니,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나무가 자랄 때, 소나 염소에 의해 짓밟히거나 도끼나 자귀에 의해 찍히는 것도 없이 비나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밤낮으로 커가니, 쪽쪽 뻗어 곧게 자라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쓸모없는 재목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다지도 심하니, 하물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라! 물욕이 참된 성품을 어지럽히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괴이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가 이 일을 나에게 말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대의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네그러! 비록 그리하나 나 역시 할 말이 있네. 《서경》의 <홍범> 편에 오행을 논하면서 ‘나무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거나 바르다’고 하였네.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재목감으로는 되지 않음지라도 그 속성으로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네. 하지만 공자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니, 정직하지 않고도 살아간다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그렇다면 사람이어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도 역시 요행이라 할 수밖에 없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지만, 사람 가운데 곧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잘 다스려지는 치세일지라도 내 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네. 자네도 큰 집을 한번 보게나. 그 집의 들보나 기둥이나 서까래나 각목을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한 경우에도 굽은 재목을 보지 못할 것이네. 이번에 또한 조정을 한번 보게나. 공경과 사대

부로서 인끈을 차고 고관지위에 올라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치고 바른 도를 지닌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네. 이처럼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항상 불행하지만, 사람 가운데 비뚤어진 자는 늘 행복하기만 하다네. 옛말에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에 봉해진다.’고 하였으니, 이 말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굽은 나무보다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네.”

- 장유, 「곡목설」 -

(나)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우리 집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A] 처음의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려 할 때  
어진 마음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썩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논 텃밭이 여드레같이로다

자손에게 물려줘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계\* 살던 것을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

[B] 밥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굵은지에만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 들어 흥질흥질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좋아들게 되었는데

옛그제 날강도에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제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자꾸나

- 허전, 「고공가」 -

\*고공:머슴

\*가멸계: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게.

\*호수:공물과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

(다)

[C] 비가 새어 썩은 집을 그 누가 고쳐 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쌓을까

불한당 도적들 멀리 안 다니거늘

화살 찬 경비병들 그 누가 힘써 할까

[D] 크게 기운 집에 마노라\* 혼자 앉아

분부를 뉘 들으며 논의를 뉘와 할까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니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헤아리니 마노라 탓이로다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건마는

그렇지만 세상 보기에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 집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고  
 [D]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집안 절로 일어나리라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  
 \*마노라:상전, 마님, 임금 등 남녀를 두루 높이어 이르는 말.

1.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을 통해 과거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조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③ 가상의 사례를 들어 가치관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용 전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을 묘사하여 세월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2. (가)의 ‘장생’과 ‘나’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물(나무)로 인해 떠올린 생각	인간사와 연관 짓기	
장생	여러 번 보고도 그 구부러져 있음을 파악하지 못함.	사람을 여러 번 보고도 그 실체를 짐작하지 못함.	①
	본래 곧은 나무도 곧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사람도 있음.	②
나	나무의 속성에는 곧음과 구부러짐이 모두 포함됨.	인간의 천성에는 올바름과 바르지 않음이 모두 포함됨.	③
	곧은 나무는 큰 집을 이루는 재목으로 사용됨.	활줄처럼 곧은 사람은 세상에서 쓰이기 어려움.	④
	굽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목수에게라도 선택되기 어려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오름.	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화는 작가에 의해 기획되고 통제된다. 화자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 청자를 상징하지만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물들 간에 주고받는 발화로 구성된 대화가 작품 내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발화의 주고받음이 텍스트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텍스트 간의 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작가는 이와 같이 발화 내용 및 발화들 간의 관계를 주재하고 조정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를 구체화한다.

- ① (가)에서 ‘장생’의 ‘탄식’은 ‘나’에게 전달되면서 대화의 실마리가 된다.
- ② (가)에서 ‘나’는 ‘장생’의 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더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청자로 호명된 ‘고공’의 반응이 제시되지 않아 화자의 발화가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의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나)의 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공감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 ⑤ (다)는 이 작품이 (나)에 대한 화답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와 (다) 사이에는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집’이 재산을 축적하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C]: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설의적 표현을 통해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E]: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는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고2 9월 / 해설 2~3쪽)

(가)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살림살이하려 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경작하니  
올벼논 텃밭이 여드레 갈 정도이다  
자손(子孫)에 계승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勤儉)**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얽혀들어 흘깃흘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살림살이가 줄어지게 되었는데  
옛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이 탕진하니  
집은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여 일으키려는가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나)

교활한 놈 거미는 족속도 번자(繁滋)하다\*. 누가 저희에게 준 기교인가, 망사로 둥근 배를 살찌운다. ㉠ **한 마리 매미 있어 그물에 걸리니 그 소리 너무 슬펐다.** 내 차마 못 들어 풀어 날려 보냈다. 곁에 있던 사람이 험난(詰難)하여 말했다.

이 둘은 똑같이 작은 벌레다. 그런데 거미가 그대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으며 매미는 또 그대에게 무슨 이익을 더했는가? 매미가 살면 거미는 굶는다. 한쪽은 그대를 덕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한쪽은 반드시 원통해 할지니, 누가 그대를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매미를 풀어 주었는가?

나는 처음에 이맛살을 찌푸리고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가 잠깐 뒤에 다음과 같은 한 마디 말로써 그가 의심하는 바를 풀어 주었다.

㉡ **거미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매미는 자질이 청백하다.** 배부름을 피하는 거미의 뜻은 끝이 없지만, 이슬이나 먹는 매미의 창자야 달리 무슨 피할 일이 있겠는가? 탐오(貪汚)\*로써 청렴을 꺾박하니 내 정으로는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거미는 어찌하여 그토록 가는 실을 토해 내는가? ㉢ **비록 이루(離婁)\*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이 아둔한 매미가 어찌 능히 살필 수 있겠는가? 날아 지나려다 갑자기 걸리니, 날개를 퍼덕일수록 더욱 얽힐 뿐이다.

저 번잡한 파리 떼 어지러이 날아 썩은 내에 비린내 쫓다가, 경망스러운 나비 떼 꽃을 탐하여 바람 따라 쉼 없이 오르내리다가, ㉣ **비록 그물에 걸려 환(患)을 만난다** 한들 **누구를 탓하겠는가?** 본래 그 재앙이 그들의 구하는 바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매미는 홀로 남과 더불어 쫓은 게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환란(患亂)을 만나 얽힌 바 되었는가? 그래 내 그 전박(纏縛)\*을 풀어 주며 한 마디 당부를 했던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주무(綯繆)\*를 떠나 교림(喬林)\*을 향해 좋은 **이** 가거라. ㉤ **맑고 그윽한 좋은 그늘을 택하여 살되 자주 옮기지 말아라.** 그러나 거미가 또 엿볼 것이니 오래 머무르지도 말아라. 사마귀가 네 뒤에서 노릴지도 모른다. 거취를 신중히 하여라. 그런 뒤에야 잘못이 없으리라.”

- 이규보, 「방선부(放蟬賦)」-

\* 고공: 머슴.

\* 번자하다: 번식이 성하다.

\* 탐오: 욕심이 많고 하는 것이 더러움.

\* 이루: 옛날 중국에 있었다는 눈 밝은 사람.

\* 전박: 얽혀서 묶임.

\* 주무: 얽힘.

\* 교림: 키가 큰 나무로 이루어진 숲.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깨우침을 주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를 통해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임진왜란 직후 허전이 쓴 「고공가」는 국사(國事)를 한 집안의 일에 비유하여, 왜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당과 싸움만 일삼는 무능하고 부패한 당시 신하들의 각성을 촉구한 작품이다.

- ① ‘큰 집’은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처음 시작한 곳으로, 새로 건국한 조선을 의미하겠군.
- ② ‘근검(勤儉)’은 옛 고공들이 지녔던 덕목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신하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 할 수 있겠군.
- ③ ‘마음을 다투는 듯’은 요사이 고공들의 다툼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하들의 당과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화강도(火強盜)’는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진 원인으로,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왜적을 의미하겠군.
- ⑤ ‘김가 이가 고공들’은 집안의 살림살이를 일으켜야 할 존재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새로운 인재를 의미하겠군.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매미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나’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두 대상의 속성을 대조하여 곧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는 ‘나’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고사 속의 인물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삶에 대한 ‘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나’의 이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학문 수양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8. <보기>에 대해 (가)와 (나)의 화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초나라의 충신인 굴원은 진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초나라의 왕을 유인하여 감금하자, 자신의 왕을 구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굴원은 이익에 눈이 먼 초나라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후 초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 ① (가)의 화자는 신하들이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 나라가 쇠락한 것에 주목하겠군.
- ② (가)의 화자는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굴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군.
- ③ (나)의 화자는 덕과 지혜를 갖춘 신하를 알아보지 못한 초나라 왕을 비판하겠군.
- ④ (나)의 화자는 탐욕스러운 존재에 의해 벼슬에서 물러난 굴원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겠군.
- ⑤ (나)의 화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대상을 공격하는 진나라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겠군.

# 정답 및 해설

## • 실전학습 •

### 정답

1	④	2	③	3	④	4	②	5	①
6	⑤	7	②	8	③	9	①	10	①
11	⑤	12	②	13	①	14	④	15	④
16	③	17	②	18	①	19	①	20	④
21	②	22	①	23	①	24	④	25	②
26	①	27	⑤	28	③	29	⑤	30	②
31	④	32	③	33	③	34	③	35	④
36	⑤	37	①	38	②	39	③	40	③
41	①	42	④	43	③	44	⑤	45	②
46	⑤	47	③	48	②	49	③	50	④
51	③	52	④	53	⑤	54	④	55	③
56	③	57	④	58	①	59	①	60	⑤
61	③	62	⑤	63	⑤	64	⑤	65	②
66	①	67	④	68	④	69	②	70	①
71	⑤	72	⑤	73	②	74	③	75	⑤
76	③	77	⑤	78	⑤	79	⑤	80	③
81	③	82	⑤	83	②	84	②	85	④
86	②	87	④	88	⑤	89	②	90	④
91	③	92	②	93	④	94	①	95	③
96	④	97	④	98	⑤	99	③	100	④
101	⑤	102	③	103	②	104	②	105	①
106	⑤	107	③	108	①	109	④	110	②
111	⑤	112	②	113	①	114	⑤	115	③
116	②	117		118		119		120	

### 해설

#### 1. [출제의도] 작품들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에서 ‘장생’은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괴이한 것이 아니로구나.’라 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가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정직한 자보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이 등용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나)와 (다)에서는 ‘고공’, 즉 머슴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세가 기울게 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머슴과 주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인물의 회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에는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시기의 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② (가)~(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조적 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
- ③ (가)의 끝 부분에서는 ‘큰 집’과 ‘조정’을 사례로 들어 굽은 나무가 집짓기의 재목으로 쓰이지 않는 것과는 달리 바르지 못한 인재가 조정에 등용되는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가치관의 대립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⑤ (나)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조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가세가 기울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다)의 서술은 세월의 흐름과 관련이 없다.

#### 2.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생각을 이해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나’는 나무와 같은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는 나무의 속성에는 곧음과 구부러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며 정직하지 않은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은 일종의 요행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나’는 그 속성에 곧음과 구부러짐을 포함하는 나무와는 달리 인간의 천성은 오직 정직한 데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생’은 ‘나무’와 ‘인간’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장생’에 의하면 나무를 여러 번 보고도 그 구부러짐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을 여러 번

보고도 그 실체를 짐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② ‘장생’은 나무가 본래의 곧음에도 불구하고 곧게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④, ⑤ ‘나’는 ‘곧은 나무’가 큰 집을 이루는 재목으로 사용되지만 ‘굽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목수에게라도 선택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인간사와 대조하고 있다. 즉 나무의 경우와는 달리, 사람은 정직하면 세상에 쓰이기 어려운 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다)의 화자는 (나)의 화자를 청자로 상정하여 가세가 기운 것에는 주인의 탓도 있으니 어른 중을 믿고 중들을 휘어잡아 다시 가세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의 화자가 (나)에서 호명한 청자에게 자신의 발화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장생’이 굽은 나무를 보고 ‘탄식’한 내용을 ‘나’가 듣고 이에 대해 반응하면서 둘의 대화가 전개되고 있다.
- ② (가)에서 ‘나’는 ‘그대의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네 그려!’라고 하여 장생의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고공’을 청자로 호명하는 화자의 말이 청자의 반응 없이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 ⑤ (다)에는 (나)의 ‘새끼 꼬며 이르리라’에 대응하는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나 (나)의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에 대응하는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와 같은 언급이 확인된다. 이 언급은 (다)가 (나)의 화자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지가 되며, 이 표지를 통해 (나)와 (다) 사이에는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B]에서 화자는 ‘밥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궂은지’, ‘마음을 다루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머슴들 간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듯’과 같은 표현은 머슴들의 행동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할아버지’, 즉 조상이 터를 닦아 이 집을 지어내 살림을 일으키고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C]의 두 행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가 새어 썩은 집’과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이며’와 ‘누가 고쳐 쌓을까’ 간의 대응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시적 맥락 속에서 문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④ 화자는 ‘마노라’와 관련하여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라는 설의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밤낮으로 ‘크게 기운 집’에 대한 걱정을 도맡고 있는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E]에서는 앞 구절의 마지막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반복하여 받는 연쇄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자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다.

**5.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청자인 ‘고공’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집안일에 힘써야 함을, (나)의 화자는 청자인 ‘그(결에 있던 사람)’에게 탐욕스러운 세대에서 청렴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깨우치고 있다.

**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김가 이가 고공들’은 집안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든 준재로, 임진왜란 직후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사를 돌보지 않는 무능하고 부패한 신하들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인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은 나라를 집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큰 집’은 ‘한어버이’가 처음 세웠다는 점에서 조선을 의미한다.
- ② ‘근검’은 건국 초기의 신하들이 지녔던 덕목이므로, 현재 부패한 신하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③ ‘마음을 다루는 듯’은 신하들이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신하들의 당파 싸움을 의미한다.
- ④ 조선이 임진왜란 직후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화강도’는 왜적을 의미한다.

**7.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나)는 탐욕스러운 인간을 ‘거미’에, 욕심이 없고 성품이 선량하며 깨끗한 인간을 ‘매미’에 비유하여 부정적인 인간 세대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은 거미와 매미의 속성을 대조하며 매미를 긍정한 부분으로, ‘나’가 매미처럼 청렴한 삶의 태도를 지향함을 보여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③ 고사 속의 인물은 거미의 탐욕을 드러내기 위해 인용되었을 뿐, ‘나’가 적극적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욕심을 부리다가 곤란에 처하는 파리와 나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매미에게 충고하고 있는 부분으로, 학문 수양에 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초나라 왕이 감금당한 것은 진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려 한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초나라 왕은 (나)의 거미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인물이므로, 비판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신하들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신하들이 왕과 나라의 위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에 주목할 것이다.
- ② (가)의 화자는 개인보다 나라를 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나라를 위하는 충신인 굴원의 태도를 긍정할 것이다.
- ④ (나)의 화자는 탐욕스런 거미에 의해 위험에 빠진 매미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굴원이 신하들에 의해 벼슬에서 물러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길 것이다.
- ⑤ (나)의 화자는 탐욕스러운 거미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진나라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